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기성찰과 공명(共鳴)으로

사회 변화를 소망하는

곽형모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서 독재에 맞서 자신의 삶을 통째로 내던졌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때론 목숨까지 걸어야만 했던 고난에 찬 투쟁의 과정은 그들에게 단순한 정의감 이상의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민주화운동 과정에 자신을 붙들어 두기 위해서, 더 나아가 독재 권력의 본질을 파헤치고, 그리고 그들이 새롭게 추구하는 사회상을 정립하기 위하

여 이성의 힘도 필요로 했다. 이러한 사회비판 의식과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갈망은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사회를 변혁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인문·사회과학은 그들에게 지적인 무기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민주화 되어가면서 변화하는 현실과 유리되어 신념이 집착으로 굳어져 버리고, 이론의

도그마에 갇혀 허우적거리는 자신들의 모습을 반성하며 새로운 대안을 찾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곽형모(47). 그는 새로운 운동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1975년에 영문과에 입학한 그는 여느 대학생들 처럼 평범하게 대학 생활을 하다 군대에 갔고, 제대 후에 복학을 했다. 그 때가 1980년이였다. 80년 서울의 봄을 겪고 그 해 5월 광주에서 자행되었던 참혹상을 전해들은 그는 커다란 충격과 함께 심한 좌절감을 맛보았다. 1982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했지만, 1980년의 충격은 그를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갈 수 없게 붙잡았다. 마침내 그는 직장을 다니면서 야학활동을 시작했다. 주도적으로 야학을 이끌어 가지는 않았지만, 막연히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에 대한 계몽적인 생각으로 시흥에서 노동야학에 참여했다.

“제가 가르쳤던 것은 생각이 나지 않으나, 지금도 저에게 강렬하게 남아 있는 인상은 제가 의식화시키려고 했던 노동자들로부터 오히려 많이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그 배움이란 자신이 알지 못하게 가졌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벽에 대한 자각이었다. 그는 존재의 차이, 혹은 처지의 차이에서 오는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기 위해서 교실에서, 술자리에서, MT에서 그리고 자취방에서 많은 만남을 가졌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으로 불려졌던 그는 몇 년이 지나서 형으로 대접받게 되었다.

야학활동을 통해 타인에 대한 벽을 자각

그러던 중 그는 친하게 지내던 후배와의 관계로 인해 ‘CA 사건’에 연루되어 1986년 11월부터 1987년 12월까지 감옥생활을 하게 된다. 감옥생활을 하면서 그는 더 이상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앞으로는 운동에만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서울 국민운동본부에서 민주화운동을 다시 시작한 그는 서울 국민운동본부가 서울지역운동연합으로 또

그 조직이 열린사회시민연합으로 변한 10년 동안 그곳에서 활동을 하였다. 그 당시에 그는 분단 극복을 위한 통일운동에 주로 헌신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또 한번의 커다란 내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이 변화를 가져다 준 계기는 90년대 중반에 있었던 남북축구 경기였다. 이 경기를 위해 판문점을 경유하여 남쪽에 온



시민운동가들에게 우선 성찰적 교육의 중요성을 설득하고 있는 곽형모

북한선수들을 환영하기 위해 ‘조국은 하나다’는 구호가 적힌 한반도 단일기를 들고 동료들과 마중 나갔던 그는 우여곡절 끝에 파출소에 가게 된다. 그 때 “조국이 어떻게 하나냐”는 경찰 정보과장의 물음에 그는 숨이 막혔다고 한다. 그 때까지 그에게 조국은 하나라는 관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정보과장의 어처구니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질문으로 인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생각을 그저 반복적으로 주장했을 뿐, 왜 당연한가를 되묻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 제도의 변화나 조국은 하나라는 단순한 민족적인 감정에 대한 호소만으로는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힘들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50년 이상 동안 제도화된 남북분단 체제에 살면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쌓인 오해와 불신, 상대방에 대한 근거 없는 폭력적인 증오심이야말로 분단 극복의 최대의 걸림돌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분단의 실체는 국가보안법이나 38선이 아니고, 국가폭력이 사람의 마음에 내면화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갈파했던 김남주 시인의 말을 빌어서 그는 자신의 변화된 입장을 압축해서 표현했다. 즉 서로에 대해 쌓아 놓은 편견과 증오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야



미래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은 공명이라는 곽형모

말로 국가보안법철폐운동이나 소파개정운동 못지않게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키워가야 할 중요한 운동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이르자 그는 젊었을 때 노동자를 상대로 한 야학활동의 경험을 다시 회상한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참으로 변화시키기에 이룬 교육이나 의식화 교육은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의식화를 정치적 신념체계의 변화로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한계가 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찰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권력 장악이나 제도적 변화만 가지고는 불충분하고, 이와 함께 사람의 내면적인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데, 단순한 지적 전달에 머무는 현재의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인 듯 하다.

의식화의 대안으로 성찰적 교육 제시

그는 이어서 “미래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은 공명(共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공명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공명은 소통이고 이는 자기 집착을 내려놓는 것에 의해 가능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고 말한다.

‘성찰적 교육’으로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사회 속에서 다양한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랫동안 형성되고 굳어진 각 개인의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각 개인의 마음속에 또 다른 본성처럼 또아리를 틀고 앉아 우리 마음의 참다운 모습을 가리는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아무런 편견 없이 바라보는 것이고, 이런 바라보는 성찰의 힘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형성된 성찰의 힘을 계속해서 키우기 위해 정진하도록 돕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라고 그는 생각하는 듯 하다.

그는 성찰적 교육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이면서, 우선 시민운동가들에게 성찰적 교육의 중요성을 설득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고, 또 그 누구보다도 많은 희생과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온 그들도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억압적인 절대 권력과의 투쟁을 통해 그들 역시 권력이나 폭력에 대한 부정적인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민운동을 오래하면 할수록 마음이 단혀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시민운동을 오래할수록 사회과학적인 지적인 훈련 못지않게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생각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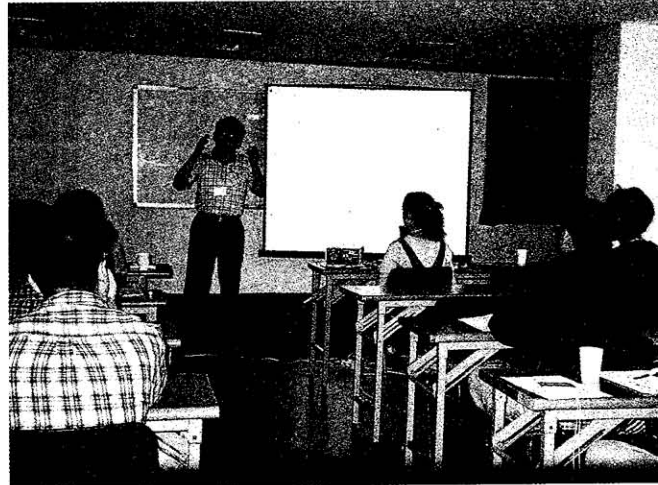
처럼 보이는 부정적 집착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것을 부탁했다. “전쟁이라는 파국적인 경험을 한 우리 사회를 극단적인 흑백논리가 지배하였고, 독재 권력이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익추구 방식이나 문화적 양식도 극단적이고, 선후배 관계나 가족관계에서도 일방통행식의 수직적인 관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흑백논리가 부정적 집착

그는 자신과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는 미래사회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성장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그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그는 ‘애니어그램’을 강의하고 있다. “애니어그램은 자기성찰과 인간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매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인간의 성격은 9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한 가지만을 두드러지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성찰을 통해 잠재된 다른 에너지도 개발하여 극단적인 기운을 상쇄시켜 에너지(또는 집착)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와의 대화 과정에서 그의 생각에 많은 공감을 느끼면서도 이러한 그의 생각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의문스럽다고 물었다. “사회는 한꺼번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명을 통해 천천히 변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그는 다양성과 타인에 대한 긍정을 강조하였다. “굳건한 신념이 미덕인 줄 알았으나, 이제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타인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마음도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한 때 유행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흐름으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생각이 언뜻 보면 선과 악이나 옳고 그름의 문



그는 자기성찰과 인간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애니어그램’을 강의하고 있다.

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인정하는 극단적인 상대주의적인 입장을 표현하는 것으로 곡해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다양성과 타인의 삶을 긍정하는 강조를 통해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나친 이분법적인 대립이 지니는 위험을 경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 같다. 이를 경계의 초월이라는 미명으로 자의적인 선택이나 비합리적인 선택을 무조건적으로 긍정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오해일 것이다.

각각의 가치가 균형 잡힌 상태를 만들어야

실제로 자유와 평등, 좌파와 우파, 경제적 풍요로움과 환경 보호, 자기 자신과 타인 등의 대립 항에서 하나가 제거되고 어느 한쪽만의 일방적인 승리를 추구하던 시대는 지나갔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참다운 지혜는 어느 한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거나 치우치는 양자택일의 태도에서 벗어나, 이들이 각각의 가치를 가장 아름답게 실현시킬 수 있는 적절하게 균형 잡힌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닐까.

(편집부)